

글로벌 섬 관광 : 이비자 섬 (Isla de ibiza 스페인 원어)의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노력

지중해 한가운데, 발렌시아에서 동쪽으로 약 150km 떨어진 스페인 영토의 조그마한 섬. 이비자를 설명하는 수많은 수식어 중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익숙한 설명은 세계적인 관광지이자 휴양지의 이미지일 것이다. 길게 가로로 펼쳐진 아름다운 해변과, 세계적으로 이름을 떨치는 나이트클럽, 지중해의 뜨거운 태양과 같은 이비자의 관광산업은 오랜 시간 동안 이비자 섬의 주된 원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유럽 대부분의 주요 공항에서 직항(런던-이비자 2시간 25분, 바르셀로나-이비자 1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발렌시아에서는 페리로도(약 5시간) 이비자에 도착할 수 있다.

모국인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베네룩스, 스칸디나비아에서는 꾸준히 관광객들이 이비자를 방문해왔다. 2016년부터 그 외 국가의 방문객들이 점차 늘어났다는 점이,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했다는 반증이라 볼 수 있다.

이비자 섬의 GDP 중 84%를 관광 산업이 차지하는데, 섬 주민의 상당수 또한 관광업에 종사한다. 관광객의 매해 방문수치가 상향 그래프를 그리는 만큼 이비자 섬의 관광업 종사자와 주민들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높아지는 물가와 광란의 파티 등으로 인한 소음 공해 등의 문제가 있으며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이비자 공항을 찾았던 이용객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뚜렷해지기 시작하는 4월부터 점차 늘어 성수기인 7-8월에 3배에 가까운 관광객 수를 찍은 후 9월부터 급격하게 내려가는 추세이다. 즉 여름에는 엄청난 수의 관광객들이 섬을 찾아 관광업의 호황을 누리지만 비수기는 비교적 상반된 수치를 보인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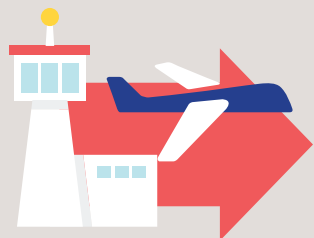
이비자 섬 관광의 새로운 트렌드

이비자 섬의 관광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상품을 모색 중에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다양한 아웃도어 액티비티 또한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해변의 리조트에서 벗어나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주목을 받는 모습이다. '걷는 이비자(Walking Ibiza)'에서는 매주 일요일 함께 걷기, 일몰 카약 트립, 별구경 하이킹, 전기 자전거 투어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밖에도 '뛰는 이비자(Running Ibiza)'로 이비자의 색다른 모습 또한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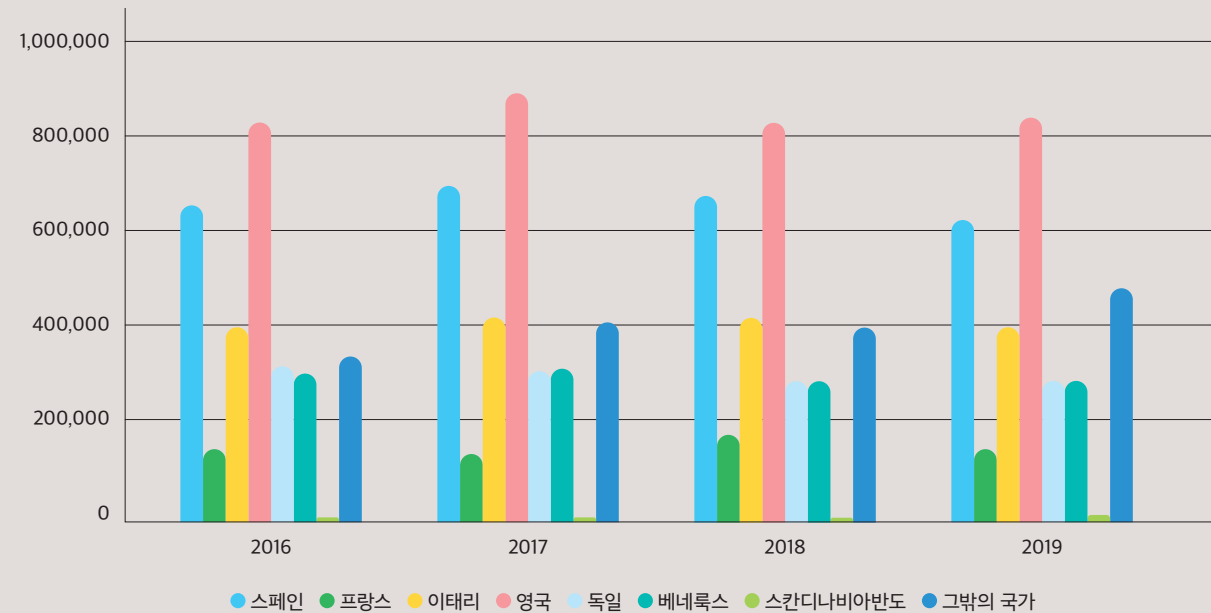
출처 :
<https://sdgs.un.org/topics/small-island-developing-states>
<https://letusibiza.com/ibiza-numero-visitantes/>
<https://sdgs.un.org/topics/small-island-developing-states>

'에코 팜(Eco-farm) 휴양지' 또한 최근 인기가 급증한 또 다른 관광 트렌드다. 지역에서 생산된 농작물로 구성된 식단을 제공하며 여유로운 환경에서 휴양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인 셈인데 실제로 농업은 이비자 섬의 또 다른 경제 버팀목이다. 올리브, 아몬드, 감귤류 등 신선한 이비자 섬의 재료들은 전 세계의 미식가를 사로잡는 방안이 되고 있다.

주요 공항에서 직항	
런던-이비자	2시간 25분
바르셀로나-이비자	1시간
발렌시아-이비자(배 이용)	약 5시간



이비자 섬 방문 주요 관광객 국적



연도·월 별 관광객 방문 추이

